

데스크사각



송기동 편집부국장·문화2부장

“발견된 유물은 금동관, 금동신발, 대도, 도자, 도끼, 창, 화살, 톱, 이식, 구옥, 관옥, 여러 면옥, 소옥 등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때는 바야흐로 세밀하고 또한 연일 눈이 내려 두텁게 쌓이므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귀청 길에 올랐다.”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다이쇼(大正) 6년도(1917년) 고적 조사 보고’의 일부이다. (국립 나주박물관 펴냄 ‘신촌리 금동관, 그 시대를 만나다’에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등 일본인 발굴자들은 1917년 12월, 나주 반남고분군 가운데 신촌리 9호분과 덕산리 4호분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신촌리 9호분 을관(乙棺)에서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다량의 부장품을 수습했다. 이들이 나중에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유물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짧은 한 쪽 반량의 문서와 사진 8장에 불과했다.

103년 전에 발굴된 신촌리 9호분 유물을 보기 위해 지난 주말에 국립 나주박물관을 찾았다. 전시실 내 금동관(국보 제295호)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옆에는 금동신발 한 켤레를 비롯해 봉황이 장식된 큰 칼과 세 갈래 잎이 장식된 칼 등이 전시돼 있었다. 푸른 녹이 스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바라보며 아득한 마한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영산강 주위에 산재한 고분은 마한의 ‘타임캡슐’이

마한 문화, 르네상스를 보고 싶다

다. 당시 일본인 발굴자들은 ‘그 방법과 관계 유물로 추정하건대 아마도 왜인(倭人)’일 것이라 여겼지만 현재 국내 전문가들은 고분의 주인공을 4-5세기 영산강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토착 세력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 이날 전남도와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20 영산강 유적 마한 문화 포럼’에서는 대형 옹관을 봉인하는 이색 행사가 진행됐다. 마한 역사 문화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참석자들이 옹관 안에 금동관과 금동신발(재현품)을 집어넣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재조명되는 ‘잃어버린 왕국’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6개 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대상으로 한다. 마한 역사 문화권 범위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한 문화권’에서 빠진 광주시는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산강 상류인 광주에도 신창동 유적(국가사적 제375호)을 비롯해 월계동 장고분과 명화동 고분 등 상당한 마한 유적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잃어버린 왕국’ 마한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에서 금동관 조각이 출토되며 마한 역사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도 부쩍 높아졌다. 당시 발굴로 마한의 독자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나주·영암의 금동관은 백제의 하사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고학자 임영진 마한연구원장(전 전남대 교수)은 “나주 금동관과 영암 금동관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마한 세력의 정치적 독자성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유물”이라며 “영암에서 출토

된 금동관은 나주 금동관과 같은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이지만 정확한 제작지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광주일보 9월 16일자 ‘마한의 금동왕관과 금동상투관’)

스토리텔링과 축제 통합 필요

마한 역사 문화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백제 속국이 아닌 마한의 문화적 전통과 독자성을 찾는 여러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마한 역사 문화권’ 11개 시·군 간의 공동 협력이다. 나주와 영암이 각각 마한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통합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일 것이다. 나주 북악 ‘아파트형’ 고분군과 반남 고분군, 국립 나주박물관, 그리고 영암 내동리 쌍무덤, 마한문화공원, 옥아리 고분군 등을 연계하는 탐방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다. 현재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지만 마한 시대에는 그러한 경계가 없었을 터이니 말이다.

마한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도 아쉽다. 국립 나주박물관 내 마한시대 유물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북악리 3호분에서 나온 녹슨 관고리를 보며 고(故)최인호 작가가 쓴 ‘제4의 제국’을 떠올렸다. 바람 개비 모양의 ‘파형동기’ (巴形銅器)를 단서로 가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소설이다.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반쪽짜리 고대 현악기나 용머리장식을 한 금동신발을 착용한 채 묻힌 정촌고분의 40대 여성 수장(首長) 등에 상상과 신화를 더해 소설이나 음악·드라마·영화 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마한은 광주·전남 역사의 뿌리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로마를 재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마한 역사 문화를 ‘재생’ ‘부활’ 시켜야 한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광산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처음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부 전 부처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는 증가와 감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추세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사후 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언택트(untact)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도서관은 사회적 공공 기관으로서 봉사 대상인 지역 사회 내의 정보 유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서관은 대표적인 다중 밀집 이용 시설이자 밀폐 시설이다.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은 물론 자료실도 방문 계층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

언택트 사회, 도서관도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을

서 조금이라도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감염병 전염과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대응은 이용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열람 서비스를 중지하고 임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특히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도서관들은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수행 가능한 기초적인 도서 무료 배송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츠,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등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이러한 대응 방식과 언택트 서비스의 제공이 이용자들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따라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재의 대응 방식과 서비스가 기존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단한 관심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도서관 장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자 핵심 서비스 객체라고 할 수 있다. 소장 자료의 열람과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자 저작물은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외부 상황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을 제공해

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다행히 국제도서관협회(ICOL)는 출판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전자 자료의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접근 제한 해제와 사용량의 급증에 따른 서버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동시 접속자 수의 확대, 그리고 저작물 전송 및 복제에 대한 범위 확대 등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의 장 기회는 향후 실물 장서 이용의 한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언택트 도서관은 단순한 가상의 디지털 도서관이 아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속성도 포함된다.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서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변화하면 해당 공간의 역할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이다. 출입 제한 조치로 마땅히 갈 곳을 잃은 이용자들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중 이용 시설의 취약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할지, 즉 공간 인식의 변화가 도서관 공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은 이제 언택트, 뉴 노멀이라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의 재개념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난의 시대, 품격 있는 언행을 촉구한다

로 사분오열되고, 극한적인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안에서조차 이반사판의 극한대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위 지도층이나 지식층에서도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온갖 험악한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더 심한 비속어나 욕두문자까지 마다하지 않고 날발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자신의 정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지 만 지나친 언어를 구사하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명예를 손상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그러한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논리나 설득력의 결여를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익명의 뒤에 숨거나 특정 단체의 힘을 업고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상처를 주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대중을 향한 무차별 폭력이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높은 영성의 표현이고, 실존의 증거이며, 자기 삶의 축약어기에 표현에 따라 자신의 인격과 품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칼에 찔린 상처는 쉬이 아물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영원히 간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옳고 선의의 뜻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 사용하여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고, 사회에 큰 파장

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당서에 ‘입은 화의 문(口禍之門)’이라 한 것이나 주희가 ‘입을 단속하기를 병마게 막듯이 하라’(守口如瓶)고 가르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을 삼가고, 조심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이다.

근래 유명 정치인들이 국정감사나 인터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너무 저속한 표현들이 많다. 또한 수많은 팔로어를 거느리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객들조차도 정치 현안이나 각종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놓는 말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막말 수준인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통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증폭시키고, 갈등만을 야기하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정제되고 품위 있는 말을 통해 세상을 안온하게 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하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격조 높은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시대가 불안하고 힘들수록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언행의 품위를 지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언행도 신중하게 절제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코로나 방역 1년 노력 물거품되지 않도록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400~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대유행의 파고가 가팔라지고 있다. 일상 감염이 동시다발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주요 사업장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며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어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근로자 네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근무조가 휴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근로자 네 명이 감염돼 냉장고 생산라인이 사흘간 가동을 멈추게 됐다. 금호타이어 역시 곡성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근무조에 대해 휴업 조치를 내려야 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축구 동호인들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집단 감염된 이후 연쇄 감염으로 번졌는데 기아차와 삼성전자 확진자 발생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전남에서는 장성 상무대에서 18명의 감염

자가 나오면서 5000여 명의 장병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 광주·전남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1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역 당국도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1.43)가 계속 유지될 경우 1~2주 뒤 감염자는 700~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어제 모든 공직자에게 사적 모임 참석 금지 등 비상 명령을 발동하고,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일상 감염이 속출하는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가 자 대학산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연시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치ết 방심하면 지난 1년간의 방역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 수능 시험 수험생 안전 최우선시해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내일 치러진다.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이미 고3 학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 수칙 확인을 비롯해 수능 당일 ‘시나리오’를 면밀히 가다듬어야

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예년과 달라진 ‘2021학년도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반입 금지 물품 등은 예전과 같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격리 시 교육청 신고’ ‘신분 확인 적극 협조’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신설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줘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현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성제이 프 △흑색연필 △지우개 △사프스(흑색, 0.5mm)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에 올해 시험실 현대 가능 물품에는 마스크도 새롭게 포함됐는데 한 장 정도 여유분을 챙겨 가는 것도 좋겠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수능 만큼 수험생들의 중압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가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당국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밀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조(趙)나라에는 염파와 인상여라는 두 재상이 있었다. 염파는 야전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인 데 비해 인상여는 환관의 식객으로 있었을 정도로 출신이 미천했지만 외교의 달인으로 성공한 문신이다.

어느 날 진(秦)나라 소양왕이 조나라 해문왕을 초청했다. 진나라의 위세에 겁을 먹은 해문왕이 가기를 꺼리자 염파는 ‘가지 않으면 조나라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초청에 응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인상여를

선공후사

수행원으로 보냈다. 연회를 마련한 진왕은 조왕에게 비파를 연주하도록 하고 이를 사관에게 기록하게 하는 지육을 주었다. 그러자 인상여는 목숨을 걸고 진왕에게 청해 ‘분부’라는 악기를 두드리게하고 이를 똑같이 기록에 남겨 양값을 했다.

인상여의 기지로 수도를 겪지 않고 귀국한 조왕은 인상여에게 염파의 직위보다 더 높은 상대부라는 관직을 하사했다. 이에 ‘제 치 헛바다 한번 놀린 것뿐인데 전정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자기보다 인상여의 벼슬이 높다’며 불만을 품은 염파

는 언젠가 복수할 기회만 노렸다.

인상여는 염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늘 피해 다녔다. 이를 본 그의 식객들이 ‘비겁하다’며 떠나려고 하자 인상여는 그제야 속마음을 내비쳤다. ‘막강한 진왕도 육보인 내가 염 장군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염 장군이 있기에 진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염파를 피하는 것은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이고 사사로운 감정은 나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선공후사(先公後私)’란 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

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 말을 꺼냈다. 공직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만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공직자라면 갖춰야 할 덕목인 선공후사의 정신을 여기고 있는 이 누구인가. 집단의 이익이나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진총장 싸움을 벌이는 이는 또 누구인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선공후사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기고



김용하 시인 전 광주 국립공립중등교장협의회장

코로나가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이는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기원 전후나 농경 사회와 산업 사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나누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중유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도의 불안과 규제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 병리학적인 트라우마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면서 공동체 내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화합으로 국민을 위무하고,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극심한 반목과 저질적 언행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